

# 평안가족복

## 특간 · 의사의 인자심

2021년 12월 7일 제 42기

‘돌파프로그램’파일 내려받기  
컴퓨터판 : <https://j.mp/fgp88>  
안드로이드판 : <https://j.mp/fgv88>



컴퓨터판



안드로이드판

## 의학박사를 크게 놀래키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리쉬둥(李旭东) 부교수는 “골과연구의 오스카상”으로 일컫는 카파델타상 수상

자이다. 그의 모친은 젊었을때 북경에서 도탄추진제(导弹推进剂)를 연구하면서 화학중독으로 인한 조혈기능 장애로 고통받고 있었고, 게다가 신체면역이 급격히 저하된 탓에 무더운 여름철에도 두터운 옷을 껴입어야 했으며 집에서 창문을 열지 못해 통풍도 할 수 없었다. 모친이 파룬궁수련을 시작한지 두달만에 그를 30여년간 괴롭이던 질병이 곧 나왔다. 이는 리쉬둥을 아주 놀랐고도 기쁘게 했는데 그도 <전법륜(转法轮)>을 읽기 시작했고 수련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 그는 인류가 생명, 신앙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점차 정신적으로부터 질병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었다.

**복택** 나에게 수술보다 더 좋은 묘법이 있어요

**기적** 중의사의 감탄 :10년의 고질 병이 빠른 속도로 제거되다

**명백** ‘삼퇴’해 복을 얻은 임신부는 위험에서 벗어나다



## 작은 진료소에서 어떻게 수많은 암환자를 치료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다른 병원에서 몇만원을 쓰기도 치료하지 못한 직장암을 나의 이곳에서 30 원만 쓰고 이틀만에 나왔습니다.

나는 칠순이 넘은 노 중의이고 스스로 작은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나의 이 진료소는 조건이 간소한데도 치료효과는 현저해 매달마다 적어도 몇명의 암환자와 기타 불치병환자들이 건강을 되찾게 합니다. 이 10여년간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암환자와 불치병환자들이 치유되었는지 셀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내가 파룬궁을 수련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환자를 치료할때는 모두 전통적인 중의법 \_ 병세를 보고, 듣고, 묻고, 맥을 짚는 4진법으로 처방을 떼고 약을 지어주곤 했습니다. 후에 나는 명후이왕에 실린 아주 많은 세인들이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찌싼런하오(真善忍好)’이 ‘구자진언’을 성심껏 넘하고 신체가 회복된 이야기를 보고서 큰 계발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도 병을 볼때 환자에게 ‘구자진언’을 넘하라고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몇년간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구자진언’이 창조한 기적을 친히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2020년 10월 24일, 한 90세의 할아버지가 비틀거리면서 진료소로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직장암에 걸려 병원에서 몇만원을 써가면서 몇달간 치료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게되자, 의사도 더는 치료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집에 돌아온후 또 개인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좀 쓴거리라도 약한첩에 모두 백원씩은 했고 그래도 효과없을 뿐더러 오히려 점점 더 엄중해져 지금은 변마저 보지못해 배가 임신부마냥 불룩해서 걷기조차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마누라는 수련하지 않는데 돈을 벌 생각만하고 빨리 병을 보고 중약을 지어 드리라고 나를 재촉했습니다. 나는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먼저 그에게 진상을 알리려고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병은 생명위험이 있는데 당신은 살고 싶습니까?” 노인은 “물론이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러면 오직 한가지 방법뿐입니다. 바로 성심성의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찌싼런하오(真善忍好)’를 넘하면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자 노인은 머리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나는 “파룬따파는 1992년에 전해 온 불가상승(佛家上乘) 수련 공법으로서, 이미 세계 100여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해졌고 수련자는 1억이 됩니다. 파룬궁이 병을 치료하고 신체를 건강히 하는데에 기이한 효과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수련후 온몸의 병이 다 나왔습니

▶ 3면에 계속

# 나에게 수술보다 더 좋은 요법이 있어요



나는 한 이름난 병원의 안과 주임으로서 파룬궁수련을 한지 25년이 됩니다. 금방 법을 얻었을 때 부터 나는 사업에서 어떻게 해야 '진선인(眞善忍)'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우선 선을 지켜야 하고, 환자를 부모 처럼 대하며, 일에 부딪치면 우선 타인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 “보너스(紅包)”거절 환자들이 풍문을 듣고 찾아오다

내가 법을 얻은지 한달이 됐을 때 외지에서 온 청광안환자 아주머니를 접수하게 됐어요. 그의 아들은 나에게 200원의 보너스를 주었고 나는 마다하다 못해 일단은 받기로 결정했어요.

환자의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고 그들은 나의 복무에 대해서도 아주 만족했어요. 출원 전날 나는 200원의 주원비 영수증을 그의 아들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는 격동된 나머지 사람만 보면 말했어요. “지금도 돈을 쥐도 받지 않고 준돈을 주원비에 보태 출원시 환불받게 하는 이런 의사가 있습니다.”

20여년간 나는 줄곧 '진선인(眞善忍)'법리로 나의 모든 환자를 대했어요. 환자들도 서로 “이 주임은 환자를 잘 대하고, 수술도 잘하며 보너스도 받지 않는 좋은 의사입니다.” 라고 전했어요. 나의 대부분 환자는 모두 풍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 난도가 높은 수술에서 100% 성공률

나는 '진선인(眞善忍)'으로 자신을 제고하는 동시에 업무능력도 아주빨리 늘었어요. 나를 요해하는 사람들은 나의 업무향상은 '기적'이라면서 어떤 수술이든 한번만 보면 알고, 시작만

하면 잘 해내며 따라서 창조력도 좋다고 말했어요.

나는 주로 안저수술을 하는데 망막박리, 당뇨망막병증, 복잡한 안질외상을 포함한 이런 수술은 난도가 가장크고, 위험성이 가장 높았어요. 그러나 나는 이런 수술을 시작한 2년간 성공률은 100% 였어요. 업계의 인사들도 이런 수치를 보면 믿기어렵겠지만 확실히 나의 몸에서 발생했어요. 나의 수술도 국내 동업계 각 큰병원 권위전문가들의 인정을 받았으며 일부 성공 사례는 그들이 견학하는 교안으로 참고하는데 제공되었어요.

## 수술보다 더욱 좋은 병치료 비결

파룬따파(法輪大法) 저작<전법륜(轉法輪)>에서 나는 의사는 잠시 환자의 표면 고통을 제거할 수 있으며 사실 '병은 마음에서 온다'기에 환자가 만약 자신의 마음매듭을 풀지 못한다면 병은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 파룬따파(法輪大法)는 우리더러 우주 특성 '진선인(眞善忍)'에 동화되게 하며, 매 사람을 도와 자신의 품행과 도덕에서 승화되게 해 근본적인 신심의 정체적인 건강을 얻게 해요. 따라서 나에게서는 수술보다 더욱 유력한 비법이 있어요.

나의 환자중에는 40여세 농민이 있었는데 그는 당뇨망막병증, 당뇨병으로 유발한 신장병도 있어 투석을 해야 했어요. 여러해 전 그는 또 을형간염, 간경화복수 질환으로 여러차례 전염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어요. 그의 한쪽 눈은 거의 실명상태였고, 다른 한쪽 눈의 시력도 저하됐어요. 그

의 병세는 아주 엄중하고, 수술난도가 아주 크며, 위험성도 높았어요. 나는 우선 그에게 파룬궁진상을 알렸고 그도 인정하며 '삼퇴'를 했어요. 나는 또 그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찐싼런하오(眞善忍好)' '구자진언'을 성심껏 넘하라고 알렸는데 그도 따라했어요.

기본상 실명상태인 그의 눈을 수술하는데 4시간 반이 들었는데 정말 복잡했어요. 4개월후 또 그의 눈속에 주입한 실리콘 오일 제거수술을 했는데 당시 그의 시력은 0.15로 회복했어요. 그의 병세로 말하자면 이것은 기적이었어요. 한달후 나는 그의 또 다른 눈을 수술했어요.

출원후 다시 검사받을때 환자는 나에게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 내가 여러해동안 앓던 을형간염이 완쾌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간후 현지에서 투석 받을때 나는 투석주임의사에게 을형간염이 완쾌됐다고 하니 그는 믿지 않고 또 나에게 화학검사를 했는데 진짜 음성이었습시다. 그 주임은 불가사이하다고 하면서 나를 일반 투석대로 넘겨줬습니다.”

환자와 가족은 모두 아주 기뻐했어요. 그는 지금은 늘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발머리에서 이리저리 달리는데 그는 성심껏 '구자진언'을 넘해 얻은 복이라며 대법과 대법사부님께 매우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나만 보면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를 말해요.

나의 수술은 다만 그의 눈질

# 중의사의 감탄 :10 년의 고질병이 빠른속도로 제거되다

무수한 환자들의 병은 치료해 줄 수 있으나 오히려 자신의 병은 치료하지 못하는데 이는 아주 많은 의사들의 어쩔 수 없는 아픔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의 리둥(李冬)은 백혈구가 낮아 10 여년간 고생했다. 그러나 그가 '영단 요약'을 얻은후 며칠 만에 완쾌됐다. 기적은 어떻게 발생했는가?

리둥은 20 여년의 경험이 있는 의술이 고명한 침구사이다. 중국, 러시아, 체코등 국가에서도 공작했다. 이 몇년간 매일 그를 찾아오는 환자는 아주 많았으며 매달마다 러시아에서 며칠간 병을 보는데 매일 수십명씩 치료한다. 체코에서는 윗층 진료실이 부족하자 아랫층까지 확장했고, 중국에서도 특별히 분망해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환자가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이토록 많은 환자의 병은 치료해줄 수 있어도 자신의 병은 치료할 수 없었어요.” 리둥은 말했다. “중국에 있을때 10



▲리둥이 <전법륜 (转法轮)>을 읽고있다.

여년간 백혈구 수치가 줄곧 매우 낮았는데 또 많은 약물에 과민성을 보였는데, 한번은 술파민 두알을 먹자 백혈구가 2000 (정상 4000)으로 떨어져 입원하고, 병원을 옮기기도 하고, 골수를 뽑아도 안됐어요. 경상적으로 감기에 걸리고 가끔씩 어지럼증을 느낄때도 있었어요.”

“미국에 온후 1996년에 나는 소염제를 두번 먹은후 바로 식은땀을 흘리며 아프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바람이 두려워 문을 나서면 옷으로 몸을 감싸야 했는데 안으로는 땀이 나고, 밤에는 자면서 식은땀을 흘렸기에 감기를 달고 살았으며, 누구처방도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나는 중국의 한 중의원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 노중의가 주는 처방으로 중약을 4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먹었으나 여전히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했어요. 여전히 식은땀에 입이 쓴데다 심장박동이 과속해 늘 청심완을 책가방에 챙기고 다녔어요.”

그때 친구가 그에게 파룬궁을 소개해 주었다. “그때는 파룬궁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줄 몰랐는데 단지 일부 동작을 연마하기 좋아서 나는 <전법륜 (转法轮)>을 청해 집에서 책을 보고 친구에게서 공법을 배웠어요.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10여년간의 병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나는 치료도 하지 않았고 다만 책을 보고, 연공을 좀 했을뿐인데 순식간에 병이 사라지고 다 나왔어요.” 리둥은 말했다. “1996년 부터 줄곧 지금까지 신체는 아주 좋아요. 파룬따파는 너무나 신기해요. 사실 매개 파룬궁수련생의 몸에서 나타난 신기함은 너무나도 많아 말하자면 끝이 없어요.”

## ◀ 1면의 계속

다. ‘천안문 분신자살’은 중공이 파룬궁을 모함한 거짓사건입니다.”라고 알려준뒤 노인에게 10원어치 대항 1냥, 20원어치 중성약 총 30원어치 약을 지어주는 집에가서 물에 타 드시면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10월 26일 아침, 이 할아버지는 또 진료소에 오셔서 기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어제 나는 아주 많은 변을 보았는데 전부 배출되었습니다. 단번에 아주 편안해졌는데 더는 불편한 감이 없습니다.”나는 “당신의 병이 낫게된 것은 파룬따파 덕분입니다. 앞으로 늘 ‘구자진언’을 념하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 ◀ 2면의 계속

환을 치료했을 뿐이며 그가 성심껏 ‘구자진언’을 념한 덕으로 수술이 기적처럼 순조로운데다 그를 오랫동안 괴롭히던 을형간염과 간경화마저 모두 완쾌됐어요.

### 그는 더는 돈을 주고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됐다

또 60세 좌우의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좌측 눈은 여러해 실명하고, 오른쪽 눈도 망막혈관폐쇄로 시력이 저하됐어요. 그의 시력을 보전하기 위해 40\_50일에 한번씩 눈에 VEGF항생제를 주사해야 했는데 한대에 5700원 이며 청구하여 환불도 안돼요. 일반 가정으로 말하면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8차례 맞은후 나는 그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도와주었어요. 그후 그는 매일 ‘구자진언’을 성심껏 념하였고 또 그의 집식구들마저 모두 ‘삼퇴’를 했어요.

현재 그는 근 일년간 눈에 주사를 맞지 않았는데도 시력은 1.0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매번 정기검진을 받을때마다 그는 나를 보면 흥분하며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를 말해요. 이는 중생이 구원된후 내심으로 부터 우러나오는 감은의 심정이었어요. 진상을 알고, ‘삼퇴’해 복보를 받아 더는 돈을 주고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되었어요. 20여년간 의사직을 하면서 이런 신기한 사례는 아주 많이 발생했어요.

# 독일 의사: 절망시각의 희망

카월은 한 치과의사로서 독일 블랙 포레스트주 아나우시에 자신의 진료소가 있다. 2010년, 한 청년이 진료소에서 이 때우기를 받고는 면부특별성종합병에 걸렸다.

그때로부터 이 환자는 면부가 아프다면서 거의 매일 그의 진료소를 찾아왔다. 카월은 전력으로 그를 도와 6명 교수를 포함한 16명의 독일의사를 방문했지만 결국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환자의 면부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그기간 사업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심지어 저녁에도 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나에게 대단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나는 나의 부족이라 생각해 심지어 나의 직업마저 포기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카월

은 말했다. 카월은 의사를 방문하는 전부 치료비를 감당했고 환자에게 아주 많은 돈도 지불했다.

2012년 카월은 파룬궁수련을 시작했다. <전법륜(轉法輪)>은 사람에게 어떻게 ‘진선인(真善忍)’의 원칙으로 타인을 대하는 것을 가르쳤고, 이는 그의 마음을 확 트이게 했다. 신기한 것은 이 때 그일도 기묘한 변화가 생겼다. 환자는 그에게 비록 면부에 아직 약간의 문제는 있으나 그의 사업에는 영향없기에 그의 생활도 정상으로 돌아갔다고 알렸다.

카월은 드디어 끝없는 어둠의 터널에서 걸어 나와 광명과 희망을 보았다. 그는 파룬따파가 그와 환자간의 원한을 선해해 줬음을 알았다.



“수련을 시작해서부터 나는 몸과 마음에서의 거대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선명한 변화는 내가 담배와 술을 끊으면서 신체가 정화된 것입니다. 가부좌는 나더러 마음의 평형과 안정을 얻게 했습니다.” 카월은 말했다. “리홍쯔(李洪志) 사부님께서 나를 구도해주시고 나에게 가장 정확한 길을 가르쳐 주신 은덕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사상, 언어와 행동으로서 영원히 감은하겠습니다.”

## ‘삼퇴’해 복을 얻은 임신부는 위험에서 벗어나다

나는 한 대륙의 의사예요. 20년 전 자신의 여러가지 질병때문에 도처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효력을 보지 못하고 파룬궁수련을 한후 질병이 전부 완쾌돼 현재까지 정력이 넘쳐요. 퇴직후 개인 산부인과병원에서 일하며 많은 임신부와 환자들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아래에 두개 사례만 말하겠어요.

### 임신부: 나는 탈당하겠습니다

8년전 나는 동료의 딸 첫번째 아이출산을 도왔고, 그때 나는 이미 그에게 진상을 말해주어 그도 소산대와 공청단에서 탈퇴했어요. 이번에는 둘째 출산을 위해 특별히 천리 밖에서 내가 일하는 병원으로 찾아왔는데 최근의 검사에서 결과가 썩 좋지 않았어요. 동료는 딸이 제왕절개수술 말고 순산하기를 바랐어요. 나는 그들에게 반드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썩싼런하오(真善忍好)’ ‘구자진언’을 성심껏 념하라고 당부했어요.

이때 젊은 임신부는 갑자기 크게 외쳤어요. “나는 탈당하겠습니다, 나는 탈당하겠습니다”나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내가 언녕 탈퇴시키지 않았던가요?” 그는 탈퇴한후 또 입당했다고 말했어요.

이튿날 검사를 받을때 탯줄이 목을 감쌌던 현상이 사라졌어요. 분만실에 들어갈때 나는 모두에게 계속해 ‘구자진언’을 념하라고 당부했어요. 태아의 머리 위치가 줄곧 높고 태아의 위치도 바르지 못해 자궁문이 열릴때 태아의 심율이 매우 느린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난산에 속했어요.

내가 아이를 받으려고 태아의 머리 위치를 교정하려고 할때 아주 경험이 있는 과주임마저 작은 목소리로 나에게 물었어요. “가능할까요?” 나는 속으로 줄곧 ‘구자진언’을 념하면서 그에게 복부에 압력을 가하라고 시켰어요. 따라서 나는 태아의 머리 위치를 교정하는데 성공했으며 아이도 순산했어요.

### “이번에는 진짜 믿습니다”

우리 병원의 한 호사에게 나는 진상을 알린적 있어요. 그때 그는 이미 ‘삼퇴’를 했다고 말했고 나는 탈퇴하면 된다고 생각해 진상을 계속 말

하지 않았어요. 며칠전 그가 해산할때 마침 나의 당직이었어요. 침대에 누운후, 탯줄이 목을 한바퀴 감싸고 있어 태아 심장박동이 느렸고, 자궁수축 힘부족으로 매우 긴박했어요. 나는 큰 소리로 함께 ‘구자진언’을 념하자고 말하자 그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몇분후 태심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때 나는 아파도 머리를 쉬우지 말고 ‘구자진언’을 념하라고 고무했어요. 원래는 절개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태아의 머리를 교정하자 아주 순조롭게 7근6냥이 되는 남자아기를 순산했어요. 산모와 가족 모두 아주 기뻐했어요. 산모는 말했어요. “나는 파룬궁을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진정으로 믿습니다.” 그의 가족 7명도 대법의 기적을 견증하고서 함께 ‘삼퇴’했어요.

